

# 광주역~조선대 '푸른길' 개방

## 2.88km 2년간 92억 투입...나무 7만그루·6개 테마광장 갖춰

### 내일 계림동 주민화합마당서 준공식

### 옛 남광주역사 주변 320m 연내 완공



도심폐선 푸른길공원 내 광주역~조선대 정문 구간(2.88km)이 2년에 걸친 조성공사를 마치고 29일 개방된다. 이에 따라 도심철도 폐선부지 내 조성되는 푸른길공원 7.9km 가운데 이미 조성된 4.7km를 포함해 7.58km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다.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광주역~조선대 정문 구간은 4만 4천314㎡ 규모로 모두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구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숲길'이라는 주제로 '해돋이 마당'과 '태양의 광장' 등 6개 테마광장과 향토수종인 느티나무, 팽나무 등 79종 7만465주가 식재돼 인근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동구 금호아파트 뒤편 주민화합마당에서 준공식을 연다.

마지막 구간인 옛 남광주역사 주변 320m 공사가 올해 말까지 끝나면, 지난 2002년부터 9년 동안 278억 원이 투입된 푸른길공원 조성사업도 마무리된다.

푸른길공원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10.8km 가운데 동성중입구~효천역 간 2.9km를 제외한 7.9km를 '선형 공원'으로, 1구간은 폐선부지 시작점인 조선대 정문~남광주사거리, ▲2구간 광주천~백운광장 ▲3구간 백운광장~동성중 ▲4구간 광주역~조선대 정문 ▲5구간 옛 남광주역사 주변까지 구간이 나뉘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푸른길공원은 공원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한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 과정, 공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 화제가 됐다.



29일 개방되는 광주도심 폐선 푸른길공원 내 광주역~조선대 정문 구간(2.88km)을 한 시민이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또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환경분야 종합대상과 녹색건전성 평가 최우수상, 2007년 대통령상인 공공건설 사업분야 '좋은 건설 발주자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푸른길공원은 80년 넘게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광주의 녹지 축을 연결한 국내 최초의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의 장소로 거듭나 광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 내달 5일 퇴임하는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 "33년간 억울한 사람 없게 노력 법관은 국민들 고민 들어줘야"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완성을 목표로 모든 법관들이 '중단없는 전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2월 5일 퇴임식을 갖는 김관재(56) 광주고등법원장은 27일 "국민들은 법조문과 판례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슴을 열고 당사자의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가치를 인정받는다"며 "꾸준한 사법 제도의 개선 노력을 통해 법관들의 노력을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3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며 "판결문 한글로 풀어쓰기나 '원스톱 민원실' 설치, 정점별 증인신문, 자백과 부인(否認) 사건 분리 심문 등 사법 시스템 개선에 관심을 쏟은 것도 큰 보람"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항소심을 사후심(事後審)의 성격이 아닌 속심(續審)의 성격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비록 '삼재관'이란 말도 있지만,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경력 법관 배치를 통해 무게감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 위증이나 무고, 사기 등 거짓말에 바탕을 둔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증·무고 전담반 구성과 부인사건 구별 심리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법치의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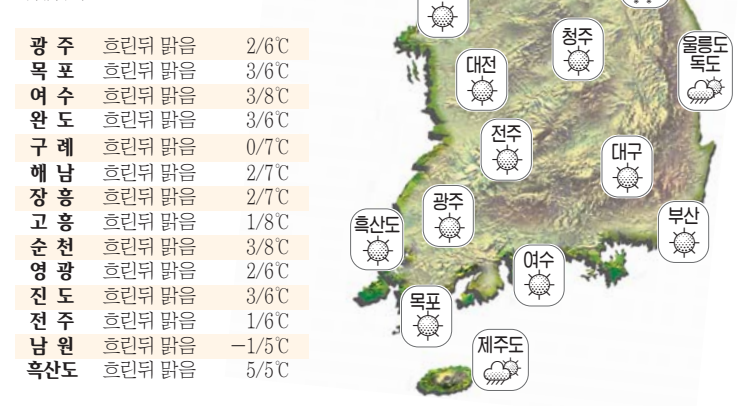
그는 "퇴임하면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제도 속에서 한계를 실감한 '소통의 문'에 관심을 기울여서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치료사'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강진 출신으로, 광주 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17회로 법조계에 입문, 광주고·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5분 해질 15시 35분 달뜨기 17시 56분 달짐 05시 38분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목포 12:49	05:2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여수 07:57	18:29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20:00	01: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14: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금)	30(토)	31(일)	2/1(월)	2(화)	3(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3/5	-3/6	0/9	-1/7	-3/5	-4/4

## 전남대 치과병원 내과 진료 병행

**전국 첫 내과 개설** 구강내과 옆에 내과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를 각각 배치하고 내과진료를 시작한다.

**원활한 협진 기대** 치과병원 내 내과는 협진은 물론 내과 고유의 영역인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료도 가능하며 임상병리검사·방사선검사·심전도·복부 및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개설된 내과는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할 예정이다.

치과병원 내 내과는 협진은 물론 내과 고유의 영역인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료도 가능하며 임상병리검사·방사선검사·심전도·복부 및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개설된 내과는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할 예정이다.

치과병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2층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신양파크호텔

## 2010. 2. 1. 스테이크하우스 오픈

- ★ 장소: 신양파크호텔 4층 스테이크하우스
- ★ 영업시간: 07:00 AM ~ 02:00 AM
- ★ 스테이크하우스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별첨)

신양호텔 111-113 | 02-28-8000

###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 신양파크호텔 워딩홀

공예품과 주얼리, 액자, 화상, 최고급 서비스! 특급호텔의 전문적이고 여유있는 결혼식을 약속합니다.

신양호텔 111-113 | 02-28-8000

### 침하원 구조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최대 100%의 공익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복원수 확보를 위한 신개념 공법

- 1. 침하원 구조를 복원**
  - 침하원 구조를 복원
  - 연약지반 보강
  - 침하원 구조를 복원
- 2. 연약지반 보강**
  - 연약지반 보강
  - 침하원 구조를 복원
  - 연약지반 보강
- 3. 침하원 구조를 복원**
  - 침하원 구조를 복원
  - 연약지반 보강
  - 침하원 구조를 복원

www.kwangju.com

### 이태리가구 전문점 스텔리스

광주광역시 동구 동문 58-15, 스텔리스 가구점(구, 동문동) 062-255-7565-7567

광주본사 겸사령: 가구점에 납품하는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1. "가구점에 납품하는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2. "가구점에 납품하는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3. "가구점에 납품하는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www.steelis.com